

# The Images of Black Expressed in Fashion Art

Seo, Bong-Ha\* · Kim, Min-Ja

Yong-in Songdam Colle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trend of pluralization is obvious in art and culture and people's interest in fusion genres and the body is explosive in contemporary art, fashion art is being settled as a genre of art. Fashion art, which began with 'art to wear movement' that took place in America in the late 1960s, has been understood interchangeably with art wear, fine art dress, art dress, wearable art, fashion sculpture, etc. but it has had various patterns ranging from designers' artistic dress to unwearable works. This study explored on the subject of fashion art works exhibited both domestic and overseas and art wear shown in fashion collection.

Fashion is a representative socio-cultural preference that has significant effects not only on costume but also on the general trend of the society. In this sense, fashion and fashion art based on the human body contain various symbols and images represented by form, structure, color, material, etc. Particularly because works of fashion art have less restriction in the expression of these formative elements and tend to be for displaying than for practical wearing, their images are remarkably exaggerated, distorted, magnified and emphasized in general.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meaning of black appearing in fashion art.

Black color has diverse meanings depending on age and people but according to Mun Hyejeong (1998), its general image is negative such as darkness, night, death, sin, misfortune, despair, solemnity, sorrow, destruction, fear, abstinence and oppression.

In relation to costume, black was considered to symbolize death in ancient times but later, it was used in clothes for priests and monks, representing religious sublimity and abstinence and in the 17<sup>th</sup> century puritans wore black dress as a sign of simplicity and

frugality. In the 19<sup>th</sup> century, black color came to be associated with masculinity, so it was used frequently in men's wear and then civil servants, lawyers, pastors, elders, etc. began to wear black apparel. In the present age, black color clothes are broadly in wear representing civic, intellectual, sexy and elegant. The meanings of black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terms- 'dignity,' 'elegance,' 'eroticism,' 'asceticism' and 'tragedy'.

However, the categories abov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fashion art. Categories such as 'dignity,' 'asceticism' and 'tragedy,' which appeared in relation to occupation, social role, individuals' identity, organization, situation, etc., hardly appear in fashion art. The meanings of black in fashion art can be categorized into "elegance," 'eroticism,' 'simplicity,' 'weirdness' and 'fear'. 'Elegance' is a graceful, gorgeous, noble and beautiful image and it comprehends 'grace,' 'comeliness' and 'beauty.' 'Eroticism' is an image stimulating sexual desire through displaying sexual attractiveness and black is a traditional color of eroticism. 'Weirdness' comprehends 'ugliness' and 'comic' and is found often in fashion art of excessive distortion and exaggeration. 'Fear' is easily found in works that use black color to intensify the fearfulness of their shapes. Lastly, 'simplicity' is found in very minimal fashion art works that use black to emphasize their simplicity.

Numerous designers and artists are attempting fashion as an art, and fashion and human body have been thrown in the middle of our life. The various faces of black, which is the most beautiful and elegant color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negative color, are still being created through unceasingly tried fashion art works and our dress.

## 패션아트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서봉하\* · 김민자

용인송담대학\* · 서울대학교

예술과 문화현상의 다원적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대미술의 탈 장르적 경향과 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패션아트(fashion art)가 하나의 미술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art to wear movement'에서 시작된 패션 아트는 그 동안 아트웨어, 미술의상, 예술의상, 웨어러블 아트, 패션조각 등으로 혼용되어 왔는데, 실제로 예술성이 가미된 디자이너의 의상부터, 착장이 불가능한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5년 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 외 패션아트 전시 작품과 패션컬렉션에 선보인 예술의상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패션은 복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흐름과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기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과 인간의 몸을 바탕으로 한 패션아트는 각각의 조형적 형태와 구조, 칼라, 재질 등에 의하여 다양한 상징성과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패션아트 작품들은 그 특성상 이러한 조형요소들의 표현방법에 제약이 적고, 실용성보다는 주로 전시를 통한 창작품을 발표하는 형태를 띠게 되므로, 이미지가 과장, 왜곡, 확대, 강조되는 등의 지각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션아트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검정색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문혜정(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둠, 밤, 죽음, 죄악, 불행, 절망, 암흑, 슬픔, 파괴, 공포, 금욕, 억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 왔다. 복식에서는 고대부터 죽음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후에 종교적인 숭고미와 금욕의 상징으로서 사제나 수도자의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청교도들이 소박함과 검소함의 상징으로 착용하였다. 19세기에는 검정색이 남성성을 상징하며 남성 복식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공무원, 법률가, 목사, 연장자들에 의해 검정색 의상이 착용되었다. 현대에는 검정색 복식이 도시적

이고, 지적이며, 관능적이고, 우아한 색상으로 폭넓게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정색은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 등 다섯 가지로 크게 범주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패션아트에 나타난 검정색의 범주는 위의 범주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직업, 사회적 역할, 개인의 정체성, 소속 집단, 상황 등에 따라 착용됨으로 인하여 검정색 복식에서 나타났던 '위엄성', '금욕성', '비애성' 등의 범주가 패션아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패션아트에 나타난 검정색은 '우아성', '관능성', '단순성', '기이함', '공포감'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위엄성', '금욕성', '비애성' 등이 패션아트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예술로서의 특성과, 새로운 시도에 따른 형태나 이미지의 왜곡과 과장에 따라 '기이함', '공포감', '단순성' 등을 강조하기 위한 색으로 검정색이 많이 쓰이고 있다. '우아성(elegance)'은 우아하고 화려하며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범주화 시킨 것으로 미적 범주에서 '우아', '우미', 그리고 '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관능성(eroticism)'은 성적인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서 검정색은 에로티시즘의 전통적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이함(weirdness)'은 '추'와 '괴'를 포함하는 범주로 변형과 왜곡, 과장이 심한 패션아트에서 많이 발견된다. '공포감(fear)'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형태의 작품에 공포감을 배가하는 검정색을 사용한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단순성(simplicity)'은 장식과 부분효과가 배제된 매우 미니멀한 패션아트 작품에 그 단순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검정색이 사용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디자이너와 작가들에 의하여 예술로서의 패션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고, 패션과 인간의 몸은 우리 생활의 한 가운데에 던져져 있다. 또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색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색인 검정색의 다양한 매력은 끊임없이 시도되는 패션아트 작가들의 작품과 우리의 복식으로 끊임없는 창조를 거듭할 것이다.